

“쌀값 20만원 사수는 농민 자존심 걸린 최후 보루”

(80kg)

우울한 '농업인의 날' 맞은 농민들

통계청 15일 '쌀 생산량' 발표...5년만의 풍년에 가격 하락 우려 요소 파동에 내년 농사 벌써 걱정...CPTPP 가입 등 대외 악재도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가래떡 데이’입니다.”

11일 '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전남 쌀 품종 '새창무'로 만든 가래떡을 목포 코로나19 의료진에게 나눠주고, 농협 광주본부도 지역본부를 찾은 고객들에게 우리 쌀을 알렸다. 전남 4000여 여성 농업인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전남도연합회(한여농)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한농연회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가래떡과 ‘쌀 와플’을 나눠주며 농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5500평(1만8180㎡) 규모 포도·복숭아와 쌀 농사를 짓는 김향숙(48) 한여농 전남도회장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가 덮친 올 한 해는 살얼음을 밟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긴 봄비가 내리는 탓에 김씨의 포도·복숭아 농장 착과율은 전년보다 10~15% 떨어졌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놓쳐 이 같은 피해를 보상받기도 힘들었다. 올해는 쌀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보여 김씨가 농사를 짓는 장성지역 벼 수매가(40kg)는 6만3000원에서 최근 6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쌀 농가는 5년 만에 풍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15일 발표하는 통계청 '2021년 쌀 생산량 확정 통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산지 쌀값은 21만4572원(80kg)으로, 추곡 수매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김씨는 “소비자 쌀값 80kg 20만원과 수매가 6만원은 농민이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이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요소 파동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요소 비료 사재기 조짐도 보인다. 밀가루를 쥐어짜는 3~4월이 되면 비료 공급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와 공급망 위기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달 말 국회 비준 처리 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금까지 FTA(자유무역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농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목포한국병원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가래떡과 두유 1000개를 전하며 감사를 전했다. <전남농협 제공>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전남도청 앞에서 “CPTPP 가입은 국민건강권과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자

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전체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열약해지는 농업 재정여건 속에서 농민들이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개인농가 인구는 31만9933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43만3829명)보다 26.3%(-11만3896명) 급감했다. 전남 농가소득은 4368만원으로, 10년 전보다 58.1% 늘었지만, 농업경영비도 1513만원에서 2337만원으로 54.5%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되려면”

세계적 기업 CIP, 'BIXPO'서 발전방안 제시 눈길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중 하나인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한전이 주최하는 'BIXPO 2021' 행사에 참가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248개 기업이 참가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미래 신기술과 산업방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있다.

유럽의 해상풍력 선도기업으로 참가한 CIP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고 해상풍력 발전 방향 및 공급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CIP 한국법인 유태승 공동대표는 녹색에너지 연구원이 주관하는 해상풍력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서 '유럽의 해상풍력 경험을 통한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유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CIP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이 해상풍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 되려면 투자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미리 풍력발전소 변전소나 제2, 제3의 목표 실행, 그리고 공급체인 구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P는 2018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100MW사업을 포함해 기가와트(GW) 규모의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백신접종·국민지원금 효과...광주·전남 지갑 열었다

3분기 소매판매액, 전년비 각각 5.0%·4.1% 증가...광주 백화점 22.7% 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 등으로 올해 3분기 광주·전남 소매판매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광주 5.0%·전남 4.1% 증가했다.

올 3분기 소매판매는 울산(-2.9%)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증가했다. 부산(3.9%)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5.7%), 대전(5.1%), 광주(5.0%)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은 백화점(22.7%)과 전문소매점(10.4%) 부문이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0.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8%) 등도 줄었다.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대전신세계아트&사이언스'가 들어선 대전 백화점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60.1% 급증했다. 이어 경기(23.7%), 광주(22.7%), 서울(14.9%), 부

산(7.9%), 울산(6.1%), 대구(5.2%), 경남(3.5%) 순이었다.

서비스업 생산액을 바탕으로 집계한 3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광주 2.2%·전남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천이 4.7%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부산(4.4%), 서울·강원(각 4.3%), 충남(3.9%), 경기(3.5%)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남과 광주 증가율은 각각 뒤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광주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이 16.9%로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4.4%), 운수및 창고업(4.4%), 정보통신업(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3%) 등도 생산액이 늘었다. 반면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은 12.0% 줄었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과 부동산업(-1.8%), 숙박 및 음식점업(-0.4%)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도 예술부문이 4.2% 증가했고, 정보통신업(3.7%), 도매 및 소매업(3.5%) 등도 늘었다. 과학부문(-1.7%), 숙박 및 음식점업(-0.9%)은 감소했다.

광주·전남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액 감소세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이어지다가 지난 2분기 각각 1.0%·1.9% 증가하며 반등했다. 하지만 3분기 각각 광주 0.4%·전남 0.9% 감소하며 또다시 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24.92 (-5.25)
↑ 코스닥	992.65 (+4.90)
↑ 금리(국고채 3년)	1.913 (+0.036)
↓ 환율(USD)	1180.80 (-0.1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